

# “사형제 폐지, 19대 국회서 해결하라”

## 7대 종교 수장 20일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제정 성명

한국 7대 종교가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여 남겨두고, 국회에 사형제도폐지 입법을 적극 촉구하기 위한 연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 종료를 함께 자동폐기 돼 왔다.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 7월 6일 새누리당 42명·새정치민주연합 124명·정의당 5명 등 재적과반수가 넘는 172명 의원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불교·천주교·개신교·유교를 비롯한 한국 7대 종단대표(이하 7대 종단 대표)는 10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7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도폐지 호소문을 공동 발표한 것은 2001년 사형폐지 범종교인연합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번 성명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령, 어윤경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종종교협의회장 등 동참했다.

7대 종단 대표는 “한국은 18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제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국회 발의 특별법 사형제 폐지 입법위해 연대 공동 발표, 2001년 이후 처음 “한국은 준사형제 폐지 국가 입법 통해 사형제 폐지하라”

이러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은 이미 4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유예)을 선언했다.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은 1991년 ‘사형폐지를목표표하는시



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는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입법화를 촉구했다.

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제2 선택의정서’를 발표시키며,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사형폐지를 전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7대 종단 대표는 “193개 UN 회원국 중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 발생 때마다 사형집행 재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언급했다. 조계종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

관 스님은 “국회서 발의된 특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시기가 바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또한 일반적으로 12월에 사형집행이 가장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형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은 생명존중을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여기셨다. 인간의 생명을 두고 법 제도를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참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불교인들이 나서 사형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0주년’ 법회

11월 23일 AW컨벤션센터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20주년을 맞았다. 이에 20년 역사를 기념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1월 23일 오후2시~8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부 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부 기념법회, 3부 힐링 콘서트 ‘더 나눔’, 4부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인 창립2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유공자 시상 및 자비나눔 유공자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장상·보건복지부장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시상이 예정됐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 자비상과 중생구제 원력을 구현하기 위해 조계종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어언 20년 세월이 흘렀다”며 “창립20주년 기쁨을 함께하고 불교 사회복지 재도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부대중과 사회복지인들의 수회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전법회관 1층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조계종 중신회 11월 3일 ‘카페 바라밀’ 정식 개관 신도 소통 공간으로 활용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 행복바라미 브릿지센터 역할을 할 ‘카페 바라밀’이 그것이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3일 복합문화공간 ‘카페 바라밀’ (행복바라미 브릿지센터)을 개관한다. 전법회관 1층과 지하1층 교육관을 활용한 카페 바라밀은 회의실과 세미나실, 카페 등을 실버만 내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1층 카페에는 카페 시설과 함께 스터디룸, 불교계 단체 홍보시설이 자리해 있다. 먼저 1층 20평 규모의 카페에는 20평 규모로 스터디룸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단체의 행사소식을 알리는 TV 등이 설치되었다. 40평 규모의 지하에는 빈프로젝트, 영상 및 음악시설 등이 갖춰진 세미나실이 마련되었다. 이 공간은 각종 회의 및 전시전 등이 가능하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카페 바라밀 내에 비치된 불교계 단체들의 홍보물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신도들을 비롯한 불자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를 원칙으로 각종 보시를 활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카페 바라밀을 행복바라미 운동의 중심 연결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신행생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층 카페의 경우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불교계 출판사들의

서적도 홍보하는 홍보관 역할도 한다. 또 불교계 NGO 단체 활동을 소개, 회원 가입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그동안 불교계에 불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이번 카페를 개관하게 됐다”며 “불교계 소규모 행사 및 전시 스터디룸, 회의실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특히 신행모임의 중심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찾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웃으면, 세계가 함께 웃어요”

문화사업단·관광공사 22일 ‘K스마일’ 협약

불교계가 범국민적 친절문화 운동인 ‘K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데 앞장선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K스마일 캠페인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서명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과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조계종은 ‘K 스마일 캠페인: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국민 참여 친절 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템플스테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인의 한국 방문을 독려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2일 ‘K 스마일’ 캠페인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스님은 왜 컵을 청와대에 보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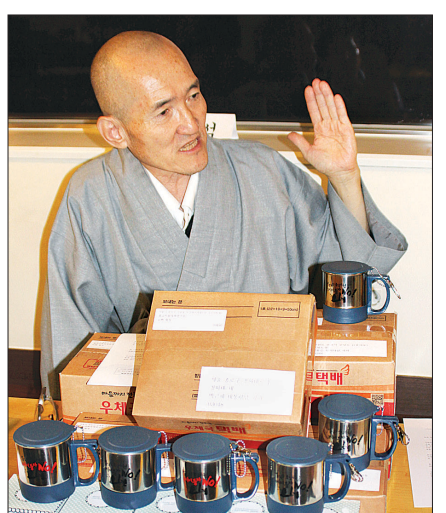
법음 스님 ‘설악산 케이블카 No!’ 등산용 컵 배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음 스님이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홍보용 ‘등산용 컵’을 제작·배포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음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산용 컵’을 나눠줬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No!’란 문구가 쓰인 등산용 컵은 1차로 3백 개가 제작됐으며, 2차에는 3천 개를 만들어 설악산환경보호단체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음 스님은 “국립공원 보호에 대한 성찰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및 관련부처장들에 1차 제작분을 22일 소포 발송했다”며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게는 응원에 의미를 담아, 불교계 지도층에는 국립공원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등산용 컵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법음 스님은 컵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편지를 동봉했다. 법음 스님은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자연보호 시설이 아니라 ‘파괴의 엘리베이터’”라며 “자연과 생명을 소비·착취해 끝내 병들게 만들 가장 빠른 수단이다.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교란, 산림경관 훼손으로 인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강원도가 합심해 추진 중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음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산용 컵’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명백히 ‘자연공원 사도설치·운영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사업 허가과정서 심각한 절차상 문제도 밝혀졌다”며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환경파괴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스님은 “인간이 삶과 자연 앞에 고개 숙일 때 육체와 정신,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도승(道僧) 덕정스님**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총무원장

**BTN 불교TV 참수행 특별법회**  
**CMB 방송 초청 설법**

사이트 open!

**참수행 인터넷 방송**  
참수행.kr | 참수행.한국  
chamsuhaeng.tv

**“나는 무엇인가?”**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모든 해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인연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수행 정각사는 수행전문도량으로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법**을 공개하였으며 정진 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도(正道)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들만이** 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시고 서산대사님, 사명대사님이 정진하신 차원 높은 고급수행법 고도의 참수행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 www.chamsamo.net | 도서출판 참수행 : www.chamsuhaeng.co.kr

**전화문의 서울본원 : 02-2269-0813 [ 대전, 대구, 부산 ]**

※ 전화상담은 2개월 과정 등록 및 재관련 방문 예약만 가능(기타 자세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화 상담불가)

※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참수행 정각사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